

宗教 定義의 批判 (二)

哲學博士 金永羲

『슈라이어마크』가 宗教思想에 준 貢獻은 만했다. 헤겔의 主知主義的 解釋에서 宗教를 解放하여 熱氣잇는 情意的 動力을 만들었다. 冷冷한 理知純正한 思想을 把持함보다 情意에 密接한 뜨거운 經驗을 關하는 宗教性을 表現 示하였다. 그러나 이 定義가 不足한 것은 理知的 成分을 全然 除去한 感情 畧을 宗教의 性質로 봄이다. 理知와 觀念이 宗教經驗과 絶對로 無 關係한 것이라는 抑測은 넘으나 情意를 重大視하는 主張이다.

純 感情 理知的 成分이 毫無한 情緒 畧을 찾는 것은 넘으나 事實을 否認하는 바일 것이다. 『슈라이어마크』가 主張하는 絶對服從이 理知的 要素가 毫無한 純正感情이 업을 것이다. 아모리 熱烈한 情緒나마 그것이 冷情한 合理가 업스면 우리의 活力이 되지 못할 바이다. 熱烈한 情緒와 冷情한 理知가 調和하지 아르면 完滿한 삶의 氣運이 나날 것이나 더욱이 사람은 宗教에서 絶對服從을 經驗하는 것이 아니라 全體인 神과 調和하는 것을 이저서는 안 된다. 自我의 自由 個性을 消滅직힘 보다 自我의 自由에 自我의 個性에 더 큰 動力을 주려고 渴望함이 宗教이다. 服從을 爲한 服從보다도 自我自由의 積極的 實現을 求함이 宗教의 本質이 아닌가? 宗教는 神聖한 命令 속에 基礎한 듯이 義務을 對하는 意志라고 칸트는 定義하였다. 卽 宗道德認識과 宗教認識을 同一視하여 우리의 人的 모든 義務를 神聖한 義務로 看做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宗教는 感情을 품은 道德』이라고 評論가 『매튜아놀드』는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 定義들은 宗教經驗과 活動의 外面的 人的 成分을 注視하고 宗教經驗의 內的 神人調和의 神秘的 要素를 度外視하는 것 갖다. 熱烈한 가슴 깊이 늦기는 神 人間의 內的 生活 有限과 無限을 聯結하는 祈禱 生活 有限과 宇宙의 最高 實在를 崇拜하는, 禮拜하는 곳에서 나는 그 滿足을 否認하는 것이다. 그러나 個人으로 或은 團體로 宇宙의 全體를 支配하는 그 最高 實在의 사랑 속에 神秘的 사랑을 맛보는 것을 宗教의 定義는 除外할

수 업슬 것이다. 『宗教는 우리의 才能을 自由로 發揮식힘을 妨害하는 呵責의 總計이다』라고 『라인악』은 定義하였다. 그러나 이 定義는 宗教의 皮相의 觀察에 結論되었다. 『타부』의 抑制와 禁止를 重要 視하든 幼稚한 宗教로 宗教 全體의 性格가 解釋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 『타부』의 宗教 生活에 있어서도 消極的 禁止 畚을 注視할 것이 아니라 그 制折와 禁止로 더 큰 삶의 氣운을 遏으려든 積極的 態度를 이거스른 아니 된다. 不合理한 한 無意味의 禁止的 信條가 初期宗教에 重要的 事實이나 그 禁止들도 삶의 積極的 要求를 充當식히는 것만이 生存하게 海汰되었었다. 勿論 完滿히 進化하여 가는 宗教에도 無理한 抑壓的 要素가 잇슴은 否認할 수 업는 바이나 最上의 宗教 生活은 消極的 抑壓이 아니라 積極的 展開에 잇슬 것이다. 消極的 禁止와 抑制를 自我의 自由와 歡喜로 交換식히는 삶의 氣運이 宗教이갓다. 삶의 技能과 活力을 좀더 充實히 쏘는 積極的으로 發揮식히는 活力이다. 宗教는 더 큰 삶을 遏고 더 큰 自我의 實現을 遏으며 더 큰 人格의 展開인 것을 理解하여야 한다.

『宗教는 僧侶의 利己的 方便의 產物』이라고 或者는 定義한다. 勿論 宗教 史上 僧侶들이 宗教의 根本的 生活을 잇고 自己의 地位를 一種의 職業으로 處하는 것도 現實的 事實이다. 宗教를 爲한 信仰을 爲한 機關보다도 僧侶를 爲한 機關이엇슴도 事實이다. 그러나 僧侶는 宗教 生活을 間接으로 指導하는 者로서 神人間의 直接 宗教 經驗에는 아모리한 權力이 업는 바이다. 더욱 宗教가 發生하고 僧侶가 난 것이지 狡猾한 僧侶들이 自己의 밥을 爲하여 創作한 것은 아니다.

宗教는 心理的 現象으로 自我의 責任을 버리고 外他的 權威를 依持하다. 『가 感情的 緊張과 모든 苦憫이 올 새 慰勞를 遏는 經驗이다』라고 心理學者 왓손』은 論하였다. 果然 그러한가? 宗教가 自己의 經驗을 逃避하는 것이가? 緊張과 苦憫에서 脫出하려는 方策 뿐인가? 차라리 自我가 自我의 責任을 가지면서 完滿한 自我實現을 目的함이 宗教가 아니라? 차라리 感情的 緊張과 苦憫을 逃避하기는 커녕 緊張과 苦憫을 이기면서 더 큰 自我展開를 目的함이 宗教의 本質이 아닌가? 宗教는 苦憫을 逃避하는 것이 아니라 苦憫을 通하여 進行하면서 苦憫을 遏시 하려는 活力의 氣운이 아닌가?

宗教는 機法이 失敗하는 새 第 二次로 發生된 것이다』-라고 엇더한 學者는 定義하였다. 卽 宗教는 人智를 狡猾히 欺瞞하는 機法의 變態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러나 宗教는 人智를 欺瞞하거나 自然現象을 變形으로 보게 하는 機法이 아니라 人格을 窺까지 是認하는 自然現象을 合理하게 理解하는 人格으로의 內的 生活인 것을 이저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魔術이라는 皮肉

的 名稱으로 宗教의 本質을 誤解 辱하게 할 수가 업슬 것이다. 모든 學者들의 海澤과 가티 魔術은 宗教의 始原이 아니라 科學의 初期的 形態인 것을 이즐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슨 狡猾한 手段으로 神의 눈을 속이고 幸運의 取하려는 것이 아니라 神을 智在로 가진 이 宇宙에서 宇宙의 모든 法則 속에서 神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 속에서 調和되는 生活에 宗教는 잇는 것이다.